

‘빈그릇 운동’ 전국으로 확산



9월 28일 열린 빈그릇활동가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활동사례들이 발표됐다.

불교전통문화인 발우공양을 응용해 정토회 에코붓다대표 유정길씨가 진행하고 있는 ‘빈그릇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빈그릇운동에 동참한 총 인원은 27만여명.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LA, 워싱턴, 뉴욕과 독일 등지의 교포와 외국인도 참가했다. 빈그릇운동은 특히 불자들 사이에서는 불교전통문화인 발우공양을 응용해 정토회 에코붓다대표 유정길씨가 진행하고 있는 ‘빈그릇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빈그릇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 서울 동작구청은 빈그릇운동을 인용한 ‘가나다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나다 실천운동’은 “가져가고(남은 음식 가져가기), 나눠먹고(반찬은 털어서 나눠 먹기), 다 먹는(음식은 남기지 않고 다먹기)” 운동의 줄임말. 구청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가나다 실천운동’을 벌이면서 풍작구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교·기업·구청 등 사례 발표회 열어 잔반 줄고 교육 효과...유사 운동도 생겨

문이고 학교·기업·군대 등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9월 28일 서울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빈그릇활동가 워크숍’에서 발표된 현황은 빈그릇운동에 대한 불자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인천 부흥중학교는 빈그릇운동을 시작한 이후 하루 100kg이 넘는 잔반량이 30kg 안팎으로 줄어들었으며, 현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의 90% 이상이

경기·대원고속 역시 1979년부터 시작한 잔반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확대해 회사 차원에서 빈그릇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여성단체들은 지역 동사무소에서 홍보 비디오를 상영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에코붓다 유정길 대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빈그릇운동에 동참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는 물론 다양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유철주 기자

462위 수호신께 제주 발전 기원

관음사, 한라산 영산대재 봉행

제주 관음사주지 용주는 9월 24일 경내에 단(壇)을 마련하고 제주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제6회 한라산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9월 24일 열린 한라산 영산대재.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총제관을 맡고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내 4개 시장이 제관이 되어 진행된 이날 영산대재에는 도내 사암 스님과 신형 단체장, 지역기관장, 시·군 마을대표,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관들은 제주도민을 대표해 천신, 한라산신, 해신은 물론 탐라개벽이래 역대 선조신위와 향토수호신 등 총 462위를 모시고 제주의 발전을 기원하는 등(齋)을 밝혔다. 집례도감 주임 스님(관음사 회주)은 인사말에서 “탐라국 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온 제주인의 정신을 되살려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영산대재를 마련했다”며 “대륙, 해양문

화, 섬문화가 어우러진 탐라문화권 개발과 전통문화 전승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라산 영산대재는 일제 때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중단된 제주의 토속의례를 관음사가 경신공양제(敬神供養祭)로 복원해 6회째 이어오고 있다. 제주에는 탐라국시대부터 풍운뇌우제, 한라산제 등의 국제(國際)와 마을마다 향토수호 민중제례가 전승되어 왔었다. 이준업 기자

“나눔으로 무등등한 세계 구현하자”

원효사, 무등산서 소아암 환우돕기 행사

광주 원효사주지 현지는 9월 25일을 ‘아름다운 나눔의 날’로 선포하고 ‘소아암 백혈병 환우돕기 모금행사’를 펼쳤다. 무등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판매와 모금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무등예술봉사단,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 본부가 함께 동참했다.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중앙)이 나눔의 날 행사에 동참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원효사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모금 행사는 국수를 비롯한 사찰음식 판매와 장기기증 서약, 나눔패지 나눠주기 등 나눔 한마당이 전개됐다.

이날 가수 주권기, 이상호씨 등 무등예술봉사단(단장 이재자) 회원 20여명은 릴레이 자선공연을 펼쳐 나눔자리를 흥겹게 했다. 이번 나눔행사를 마련한 현지 스님은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은 모두가 존귀한 부처라는 불교의 무등등(無等等)을 뜻한다”며

“나눔으로 무등등한 세계를 구현하자”고 말했다. 원효사는 이날 음식판매와 모금한 성금 250여 만원을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아이들의 후원기금으로 전담할 예정이다. 글·사진·광주·이준업 기자

세익스피어 문학 불교적으로 조명

해남 광보사 ‘깨달음의 향연’ 서

땅콩 동네 해남 광보사(주지 자황)는 9월 23-24일 양일간 ‘제2회 깨달음의 향연’ 축제를 펼쳤다.

인간관을 살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세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햄릿에서 ‘인간이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가.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란 정말 하느님과 같도다’고 말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 사상과 다르지 않은 인간관을 엿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축제를 여는 첫날 23일,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중강연회에서 초청법사 해당 스님(담양 금타선원장)은 ‘세익스피어 문학의 불교적 조명’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세익스피어는 문학작품을 통해 ‘깨닫지 못한 증생, 깨달으면 부처’라는 불교와 같은

광보사는 강연에 이어 24일 경내에서 ‘가을과 명상, 하늘소리 바람소리’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준업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군포 법해사

실천은 우리의 ‘힘’



법해사 자원봉사조직인 ‘연꽃봉사단’ 신도들이 자원봉사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25명씩 6개조로 구성된 연꽃봉사단은 매주 서너 곳의 복지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일부 스님이나 사찰들을 보면 ‘무’나 ‘냄새’만 풍길 뿐 실제로는 내실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군포 법해사는 다르다. 법해사의 활동을 보면 ‘아하! 이렇게도 하는 곳이 있구나’ 하는 감탄사가 나올 만하다. 경기 군포에서 자리 잡은 지 40년 된 법해사(주지 벽해, 산본 신도사가 들어서면서 도심포교당이 된 법해사는 ‘복지도량’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리고 지난해부터는 군포시의 지원으로 호스피스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이 모두가 법해사가 시에 요청해 이뤄진 일이다. 물론 연꽃봉사단의 활동이 복지관과 시설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다. 7년째 무의탁노인 발지알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또 요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심지어는 군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요청했었을 정도다. 도대체 이렇게 봉사활동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직적인 ‘연꽃봉사단’ 활약 지역사회로 선방·차집 등 갖춘 시민회관 건립 목표

만큼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것도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사람 모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봉사활동체도 다양하다. 법해사의 자원봉사조직인 ‘연꽃봉사단’은 각조 25명씩 모두 6개조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신도수는 150명이 된다. 이들은 조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군포 양지뇌성마비재활원, 군포장애인복지관, 군포매화복지관, 안산 동지마을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매화복지관은 노인복지기관이고 동지마을은 청소년 복지시설. 이렇게 다양한 시설에서 활동이 가능한 것은 연꽃봉사단이 군포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그

“요즘 신도분들은 많이 배워서 교리도 해박하고 나름대로 수행도 잘 하세요. 하지만 아직 화합은 좀 부족한 편이죠. 모를지 모르지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법해사 총무 영경 스님은 ‘실천하는 삶, 화합하는 삶’이 법해사의 모토라고 말한다. 최근 들어 법해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2007년 요사체를 헬고 선방, 찜질방, 차집, 불교노래방 등을 갖춘 시민회관을 짓는 것이다. 시민의 휴식처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또 있다. 주지 벽해 스님은 여건이 되면 불교유치원을 꼭 하고 싶다고. (031)394-7253 글·사진·현명우 기자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 드립니다.

“천문을 열어라” 책값: 20,000원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태몽선사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빙의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 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껴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고 태몽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뜬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들어드려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명중 8.9명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요실금이 없어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어 남편 비탈날 염려없고 전립선이 좋아진 남자는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니 이러한 신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 내 나이 75세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들의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적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씌워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 탈을 쓴 놈들에게 속지 마시고 빙의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층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부터 2주간은 서울 수련원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위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답십리 고미술상가 2동 맞은편에 있습니다. ☎ 전화: 02)2216-6278 / 011-9803-4600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우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천의선도 태몽선사 김영생 올림